

서 평

한상복·권태환 공저, 『중국 연변의 조선족 :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지역 연구총서 1.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이 책은 저자들이 1990년 겨울의 한달과 같은해 여름의 한달 반에 걸쳐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두차례 현지방문을 통하여 연변대학과 공동으로 행한 설문지 조사와 저자들의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족의 현재 일상생활과 사회적 실태,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 등을 서술한 지역사회 연구서이다.

저자들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회전체 체제와 구조에 관한 비교적인 안목에서 사물을 관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들의 역사적 경험, 중국사회의 조건과 변화, 조선족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보다 중국 조선족이 더 큰 문화 변동을 겪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옳다”(제1장)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조선족의 이주배경과 정착과정의 특성, 중국사회의 체제와 이념의 변화, 중국이라는 국가와 조선족의 사회와의 관계, 한족과의 문화접변, 조선족의 독특한 문화전통 등의 요소의 상호작용을 설명의 틀로 삼는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의 직접 간접적인 교류와 접촉을 통한 새로운 문화변동의 조짐 등을 분석한다. 총 15장의 책은 이주역사, 인구변동, 생활경험, 국가 및 민족의식, 행동양식과 가치지향, 가족, 혼인 및 친족개념과 조직, 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직업구조의 변화, 농업의 구조적 특성, 의식주생활, 언어생활, 교육, 의례생활, 보건과 질병 등에 걸친 광범위한 항목에 걸쳐서 연변지역 조선족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본문 뒤에는 저자들이 사용하였던 질문지표를 부록으로 첨부함으로써 타 연구자들에게 비교학적 분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미 전제에서 암시하듯이 이들의 연구결과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과학적 훈련이 없는 사람들의 관광방문에 의한 기존의 단편적 인상기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허구, 즉 조선족이 순수 민족문화 전통을 고수하여 왔고 모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동질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상상을 벗어나서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이 관찰한 특징적 사실은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이라도 이미 인구구성에 있어서 조선족보다 한족이 더 많다는 것과 조선족이 가족계획 국가시책에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인구성장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족 세대 간에 중국의 현대사에서 서로 다른, 심지어는 상반된, 입장에서의 경험을 겪었으며 따라서 이들 간에 심리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아직도 문화혁명을 비롯한 현대사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족의 모국에 대한 의식은 세대가 내려올수록 약하며 오히려 중국국민으로서 중국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들은 노동직업을 기피하고 화이트 칼라 직업을 두드러지게 선호하여,

타 민족과 달리 농업과 개체호 형태의 상업은 부녀자가 담당하고 남자들은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비농업 부문과 간부나 전문직에 종사하려는 직업의식과 지위주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위성취의 기회와 예측불허의 중국실정은 그들로 하여금 조급성과 높은 경쟁심을 보이게 한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조선족의 규범 속에서 생활하고 공적으로는 한족중심의 규범에 따라야 하는 규범적 한계에 처해 있는 한계인(marginal man)이다.

문화변동의 측면에서 성(性)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구분은 아직도 명백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모-자식의 관계는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직계가족 유형이 감소되고 세대 간의 권위체계가 사라지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는 퇴색하는 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 토지의 전민소유제와 경작권의 균등분배에 따른 가부장 권위의 경제적 기반의 상실, 그리고 개혁개방이 가져온 개인주의 등의 영향으로 본다. 친족관계는 원래 이주배경과 정착과정의 특성상 동족집단을 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계유에 따른 친족의 제도적 구체성과 엄격성이 발달해 있지 않다. 더우기 조상숭배의 의례나 제사의 쇠퇴와 함께 친족관계보다는 실질적인 평소의 왕래관계가 더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혼인에 있어서는 민족내혼 지향성이 강하며 한국에서의 같은 출신지역끼리 혼인관계를 수립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족문화 전통은 아직도 의식주 생활에서 많이 남아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일상복은 노동복에서 양복으로의 변화 추세를 보이면서도 여성들은 한복을 입고 있으며 개고기와 김치가 보편화되어 있다. 사농공상의 전통적인 계급의식이 남아있어서 농업을 선호하고 상업을 기피하며 또한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은 대학입학 시험장에 부모들이 몰려와서 격려하는 모습에서도 보여진다. 언어에 있어서 농촌에서는 95%가 도시에서는 74%가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한족 중심의 세계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족학교를 선호하고 한어학습에 적극성을 보인다.

전통적인 세시풍속과 의례생활은 거의 사라지고 혼인과 상례를 제외하고는 조상제례도 지극히 간소화되어 친족결합의 중심적인 의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명절로서는 음력설(춘절)과 8·15 노인절이 가장 큰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보름(원소절)과 추석 등 한족이 크게 치르는 명절에 조선족은 조용히 보내는 것 같다. 놀이도 윗놀이와 마작과 카드게임 외에는 별로 발달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술과 담배, 맵고 짠 식생활로 인하여 간염, 암, 고혈압이 많다.

특히 “비농업 인구의 증가, 비농업 산업의 증가가 눈에 띄며 농업노동자의 공장 노동자화, 새로운 농업의 등장 등은 농촌에 있어서의 성과 연령에 따른 역할 구조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언급은 중요한 시사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농촌공업화 및 개체호에서 향진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기업체의 발달과 이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재편성 등으로 서술되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는 연변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경제구조

를 주축으로 한 중국연구의 주된 과제인 것이다.

이상에서 추출한 내용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이 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조선족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변에서의 문화변동이 이러하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이 때까지 지나왔던 중국의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서 해외교민의 연구에 있어서도 단순히 방문자의 눈에 비친대로 그려내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이민사회”로서의 특성을 기본으로 삼고 역사적 과정, 그들이 살고 있는 전체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계인”의 개념과 “문화접변”의 시각을 적용하여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는 방법론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현실에 대한 서술에 치중함으로써 앞으로의 보다 심층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먼저, 저자들은 지난 40년간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조선족은 반국가적이라고 의심받기 쉬운 “민족주의”적 움직임과 반사회주의적 봉건주의 잔재라고 매도되는 민족전통의 사회적 제도와 신앙 및 풍습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포기하도록 강요당해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식량해결에 급급했던 경제적 궁핍하에서는 의례와 예술 등 생계경제 외적인 활동을 향유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전역에서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새로운 소비부문의 발달이 전통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자 역시 조선족 사회에 현대 한국의 물질문화, 유행가, 언어, 예술 등이 역수입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문화변동이 이루어지는 실마리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이라는 일정한 시점 이후의 일련의 변화과정과 그 과정으로부터 어떤 해석과 결론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넘길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저자 자신들도 역설하고 있다. 일례로서 거주형태로부터 전통적인 가족유형의 변화(제6장)를 진단하고 있으나 그것이 곧 전통적인 가족이념이 바뀐 것으로 보는 데는 신중을 기한다. 한족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상으로서, 아직도 혼인은 가족전체의 문제이고(제7장) 분가는 보다 더 넓은 거주공간과 경제적 활동의 유리한 점을 확보하는 전략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이다. 또한 분가한 형제들이 모두 같은 촌락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사적인 영역에서 가족 관계와 이념이 작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형식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대가족 혹은 직계가족 유형은 아니지만 “핵가족적 성격이 큰 확대가족”이란 가족관념이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작용함을 의미할 것이다. 상속이 실천되는 사유제와 가족이념의 재생산 기제인 조상숭배가 모두 공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오늘날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가족과 친족의 관계가 오히려 재인식되고 있고, 또한 중국에서 전통적인 가족이념의 해체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족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변조선족 사회에 가족이념과 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연구의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친족의 범위나 친족관계의 구체성과 제도적 측면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

이 공동체적 기반을 구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촌락공동체의 성격이 개혁개방과 개인 책임생산제의 도입으로 와해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 의료, 노후부양 등 복지와 문화시설의 향유를 해당 지역사회가 자치적으로 해결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 지속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근간인 썸인데 연변에서 조선족들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도 생산과 소비는 개체와 집체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연변의 조선족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서 “사회주의”가 조선족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은 결론이 없다. 그것은 연변 조선족 사회와 문화의 현황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먼저 저자들이 직접 관찰하고 겪고 들은 것에 충실하게 서술하는 것을 목적 및 의의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보다 충분한 연구는 비교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현지의 조사여건이 제공되어야 하며,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국내의 일년단위 예산행정 위주의 연구비 지급제도 및 연구평가제도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에 실질적인 길잡이로서의 의의가 크다.

김광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Tel: 880-6423(O), 532-5011(H)

Susan Abeyasekera, *Jakarta: A History*,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98p.

1.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역사를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부분은 17세기 초엽 네덜란드가 바타비아(Batavia: 자카르타의 옛 명칭)를 설립한 이후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의 식민지 도시로서의 역사를, 둘째 부분은 일본의 점령과 인도네시아 혁명으로 야기된 “정치적 공백기간”(interregnum: 1942 - 1949년) 동안의 역사를, 셋째 부분은 독립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의 자카르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역사서술의 관점과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책이 인도네시아의 역사연구에 대해 갖는 의미는 첫째, 기존의 역사연구가 주로 국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데 반하여, 저자는 지방사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젊은 역사학자들이 국가단위의 역사서술에서 제시된 일반적 해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수준에서의 역사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하려는 경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근대, 현대사 연구가 미국 정치학자들